“수행, 치유명상 아닌 지혜성취 실천과정”

11월 29일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

정준영, 수행–현대 명상 고찰
치유 위한 명상, 계 · 혜는 배제
수행, 치유 아닌 해탈지혜 초점

“일방적 서구 마음챙김 수용보다
삼학, 불교교리 전할 수 있어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오늘날 명상의 열기가 뜨겁다. 하지만 ‘수행’의 본래 의미를 모르고 ‘명상’에만 집착한다면 ‘명상’을 자칫 행복하고자 하는 갈애의 불쏘시개 정도로 전락시킬지도 모른다.”

현대 심리치료에도 활용되고 있는 치유로서의 ‘명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과는 그 방향성과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는 비판적 주장이 제기됐다.

정준영 서울불교대학원대학 교수는 11월 29일 동국대 본관 남산홀에서 열린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에서 발표한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를 통해 초기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과 현대적 명상을 비교·고찰했다.

정 교수는 초기불교 ‘수행(bhāvanā)’ 구조를 분석하고 그 최종 목표가 해탈(대자유)에 이르는 ‘지혜(paññ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도리어 명상의 과정에서 일어난 황홀경이나 평온함을 초기불교에서는 경계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색계에서 선정의 단계를 말하는 ‘사선정(四禪定)’에서도 초선-이선-삼선-사선으로 단계로 깊어질수록 희열, 즐거움과 같은 일체 욕구들은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게 된다. 붓다가 제자들에게 집중을 닦으라고 권한 이유 역시 “집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집중되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계정혜)삼학으로 윤리성을 갖춰 집중의 마음을 개발하고 번뇌를 제거해 해탈에 이르는 성장과정”이기에 심리적 안정, 힐링, 스트레스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실용적 수단으로서 현대의 ‘명상’은 ‘수행’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기법에만 매몰된 현대의 명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선정(禪定)이 깊어질수록 즐거움이 아닌 소멸로 나아가야 하지만, 현대의 명상들은 집중에 매몰돼 정학(定學)의 일부인 ‘바른 마음챙김[正念]’ ‘바른 집중[正定]’의 의미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초기경전에서 나타나는 위치와 맥락을 파악하기보다 마음챙김과 집중이라는 기제가 지니는 특징 자체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마음챙김은 지혜와 조화를 잃었고 집중은 마음챙김, 알아차림과 분리됐다. 특히 계학(戒學)과 혜학(慧學)은 명상의 실천에서 종종 소외되기도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밝은사람들연구소는 11월 29일 동국대 남산홀에서 ‘제24회 밝은사람들 학술연찬회’를 개최했다. 정준영 교수가 ‘수행과 명상의 현대적 의미’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명상의 연구방향도 마음챙김이라는 단일 요소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면서 ‘명상은 곧 마음챙김’이라는 인식이 강화되고, 명상은 ‘마음챙김의 기술’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결국 현대의 마음챙김 명상은 초기불교의 통합적 수행체계와 달리 정학의 일부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마음챙김 명상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서구 대승불교 학자들을 중심으로도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출간된 〈마음챙김의 배신(원제:McMindfulness)〉의 저자 로널드 퍼서는 “현대 마음챙김 명상이 ‘혁명’이 아니라 산업화된 프랜차이즈 명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마하시 사야도의 수행법에서 일부분만 추출해 치료적·심리학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 교수는 “‘수행’이 갖고 있는 계정혜 삼학의 구조를 통해 서구 심리치료적 명상의 한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면서 “서구 명상 치료시스템들을 받아들이는 데 급급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불교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제공하는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초기불교 수행은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을 넘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 변형과 해탈을 추구하는 실천적 여정”이라며 “현대적 명상이나 심리치료적 명상과의 접점에서 삼학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불교 본래의 수행구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명상의 본질을 집중을 통한 치유가 아닌 통찰과 지혜의 성장에 두는 태도 역시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이날 연찬회는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 이하 연구소)가 ‘수행’을 주제로 2027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되는 ‘3년 학술연찬결사’의 첫 번째 행사였다.

첫 주제인 ‘수행, 초탈인가 치유인가’로 열린 이날 연찬회에서는 정 교수를 비롯해 한산사 용성선원장 월암 스님이 ‘조사선의 깨달음과 수행’, KAIST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엄성민 데이터리퍼브릭 대표가 ‘불교수행과 명상과학: 초탈과 치유의 메타 융복합적 통합’, 성혜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가 ‘신성한 독서(lectio divina)와 수행 전통의 통합적 이해’, 권석만 서울대 심리학과 명예교수가 ‘구도적 수행의 심리학’을 각각 발표했다.

올해 연찬회가 ‘수행’의 면면을 큰 틀에서 다뤘다면 내년부터는 세부적인 접근이 이뤄진다. 2026년 11월에 열릴 연찬회에서는 ‘지관, 함께 하나 따로 닦나’를 주제로 초기·대승불교와 티베트·중국·한국불교, 종교학, 심리학 등의 관점에서 불교 수행의 핵심인 지관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2027년 11월 개최되는 연찬회에서는 ‘간화, 전통의 계승인가 창발적 혁신인가’를 주제로 초기·선불교와 불교학, 종교학, 심리학 등의 연구를 통해 간화선의 면면과 그간의 연구 현황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태평소 전문 교육·전승 위한 보존회 창립

벽응 스님계 태평소 보존회
12월 3일 창립총회 개최해
“불교 소리, 가락 전승할 것”

영산재 등 불교전통의식의 작법과 이운에 필수적 악기인 태평소(太平簫)의 체계적 교육과 전승을 위한 보존회가 출범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2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벽응 스님계 재(齋) 태평소 보존회(이하 태평소 보존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불교문예원장 지허 스님, 영산재 전승 교육사 일운 스님, 영산재보존회장 현성 스님, 교육원장 재홍 스님 등과 보존회원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허 스님이 보존회 초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고문으로는 상진 스님, 일운 스님, 원허 스님(영산재 이수자)이 위촉됐다. 자문위원으로는 현성·석봉·수봉·능화·영산·호산·원봉·성천 스님 등 중앙과 지역에서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등을 전승하는 보존회장들이 참여했다. 전문위원으로는 위재영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박미은 삼현육각 이수자가 이름을 올렸다.



태고종은 12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회의실에서 ‘벽응 스님계 재(齋) 태평소 보존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총회 직후 진행된 기념촬영.

보존회장 지허 스님은 “1993년 신촌 봉원사에서 호적(胡笛, 태평소) 특강을 열렸고, 벽응 스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당시 스님께서는 ‘자네만 알지 말고 후학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를 잊은 바 없다”면서 “그럼에도 벽응 스님의 소중한 불교 가락이 사라질 위기여서 안타까웠는데 보존회가 발족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 벽응 스님 선양 사업과 태평소 보존과 전승에 힘쓰겠다.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상진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범패에도 고하자가 있듯이 음이 맞지 않으면 그 음은 송불(送佛)이고 그 음이 맞으면 염불(念佛)이다. 호적도 염불이 되도록 잘 맞춰야 한다”면서 “태고종은 불교의례의식의 뿌리를 가졌다. 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뿌리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운 스님은 축사에서 “벽응 스님은 태평소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후학들에게 귀감되는 훌륭한 어른이었다”며 “많은 스님이 불교의식에 필수적인 악기인 태평소를 정확하게 배워 전통문화를 전승하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향후 보존회는 월1회 무료교육을 시행해 태평소를 알리는 데 힘쓸 계획이며, 회원들에게는 2년 과정의 전수교육 강좌도 운영한다.

한편, 벽응 스님(1909~2002)의 태평소 음악(대취타·염불·천수·요잡)은 영산재나 예수재, 수륙재 등 태고종이 보유한 무형문화유산의 시연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신중일 기자

임란 비켜간 ‘안성 청원사 대웅전’ 보물된다

국가유산청 12월 1일 지정예고
조선 초 건축양식 담겨 가치↑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성 청원사 대웅전.

임진왜란의 화마를 비켜가 조선 초기 건축양식을 간직한 안성 청원사 대웅전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는 건축형식과 시대적 변화 양상을 보여 주는 ‘안성 청원사 대웅전’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12월 1일 밝혔다.

‘안성 청원사 대웅전’은 창건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1854년(철종5년) 대웅전의 공사 내용을 담고 있는 상량문을 통해 그 이전에 건립된 건물임을 알 수 있다. 포작의 세부 장식이나 구성수법 등을 통해 건립연대를 조선전기로 추정할 수 있으며, 수종 분석과 연륜연대 분석을 통해 15세기의 부재로 특정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임진왜란 이전에 건립돼 현존하는 건물 사례가 드물고 다는 점과 16세기경(약 1550년) 건축의 구성과 양식이 한 건물 안에 공존하고 있다”면서 “고려 시대 주심포계 공포가 조선 시대 익공계 공포로 변화·정착해 가는 과도기적 단계를 잘 보여 줘 학술·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물로 지정예고된 안성 청원사 대웅전은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물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원주전통판화공모 대상에 권혜정 작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주최
10명 판화 인출 명인 배출


제13회 원주전통판화공모전 대상 수상자 권혜정 작가.

판화 인출 장인을 배출하기 위해 열리는 원주전통판화공모전의 올해 대상에 권혜정 작가가 선정됐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국내 유일 전통 인출 장인들의 향연인 제13회 원주전통판화공모전 대상(국가유산청장상) 수상자로 권혜정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대상 수상자인 권혜정 작가는 김각한 각자장의 전수교육생으로 11, 12회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실력 있는 인출 장인이다. 특히 올해 수상작인 ‘수복강령 부귀다남문’과 ‘매헌집책판 인출본’은 “먹색의 농담 처리가 좋고, 불규칙적인 판면인데도 불구하고 먹색이 균형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인출해 숙련된 기량이 돋보였다”는 게 심사위원들의 평가다.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지상인 최우수상에는 손석우 작가의 ‘문방사우호접덩쿨문’과 ‘청음선생년보 책판 인출본’ △원주시장상인 우수상에는 유태찬 작가의 ‘사격자만자원앙운용’과 ‘매헌집문집판’·윤수진 작가의 ‘사격자만자운학문’과 ‘성오당선생문집 책판 인출본’이 선정됐다. 고판화박물관장상인 장려상은 풍기성·이덕영·김현균·이동산·김지연·이종성 작가에게 돌아갔다.

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은 “판각과 인출은 판화·인쇄문화의 핵심으로 소외된 인출 기술의 보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원주전통판화공모전이 계속 발전해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인출장 제도가 신설돼 한국 목판 인쇄술이 한층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민중불교운동’ 40년, 면면을 톺아보다

불교평론, 겨울호 발간… ‘민중불교’ 특집 다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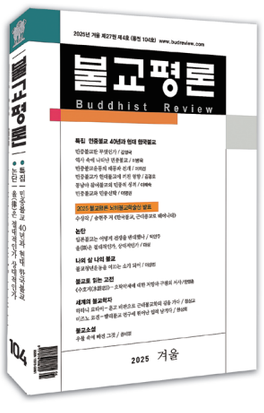
불교 대표 학술 계간지 〈불교평론〉 2025년 겨울호(통권 104호)〈사진〉가 발간됐다.

이번 겨울호에는 1980년대 한국사회의 민주화 열기 속에서 태동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실천과 역사적 전환을 이끌어 낸 ‘민중불교운동’ 40주년을 맞아, 그 역사적 의의와 과제가 특집으로 집중 조명된다.

1985년 ‘민중불교운동연합(민불련)’의 창립은 불교가 산중에서 역사의 현장으로 걸어 나온 일대 사건이었다. ‘특집: 민중불교 40년과 현대 한국불교’에서는 당시 치열했던 운동의 전개 과정과 사상적 배경,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을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김영국 연경불교정책연구소장은 ‘민중불교란 무엇인가’를 통해 민중불교의 정의와 당시의 논쟁들을 재조명하며, 이병욱 불교평론 편집위원은 ‘역사 속에 나타난 민중불교’에서 대승불교와 삼계교, 원효 사상 등에 나타난 민중불교의 맹아를 추적한다. 이희선 정의평화불교연대 대표는 ‘민중불교운동의 태동과 전개’를 통해 1980년대 현장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며 김경호 지식정보플랫폼 운판 대표는 ‘민중불교가 현대불교에 끼친 영향’을 통해 민중불교가 불교 자주화와 사회 민주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한다. 이외에도 이혜숙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의 ‘동남아 참여불교의 민중적 성격’, 이명권 K-인문종교연구소장의 ‘민중불교와 민중신학’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실천을 비교·확장해 고찰한다.

‘사색과 성찰’에서는 ‘민중불교와 나’라는 주제로 당시 민중불교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12명의 회고를 담았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이남재 합천평화의집 원장, 서동석 민불동지모임 대표,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 등 당시 활동했던 인사들의 육성을 통해 관념이 아닌 실천으로서의 불교가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밖에도 ‘논단’에서는 박연주 동국대 대우교수의 ‘일본불교는 어떻게 전쟁을 반대했나’를 통해 전쟁과 종교의 관계를 성찰하고,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의 ‘율(律)은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를 통해 계율의 현대적 적용 문제를 짚어 본다.

‘불교로 읽는 고전’에서는 안영훈 교수(경희대 국문과)가 중국 4대 기서 중 하나인 〈수호지〉를 불교적 관점-오탁악세에 대한 저항과 구원의 서사-에서 새롭게 해석하며 ‘세계의 불교학자’ 코너에서는 하타니 료타이와 미즈노 코겐 등 일본 근대 불교학의 거장들을 소개한다.

‘불교소설’에서는 〈덕혜옹주〉로 잘 알려진 권비영 작가의 단편소설 〈우물 속에 빠진 그것〉을 통해, 가슴 아픈 현실과 상처에 대한 위로와 치유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다.

신중일 기자